

##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Kyoung-Ha kim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시와 M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9월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198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기술 통계, 독립표본 평균 검정(t-test),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 피어슨 상관계수, 통제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강점인식( $\beta=.473, p<.001$ )과 간호전문직관( $\beta=.167, p<.01$ )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모형은 진로정체감을 48.2%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간호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호,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execute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attending in the nursing departments in G and M cities from July to September 2021. Among the collected data, 19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strengths knowledge( $\beta=.473, p<.001$ )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eta=.167, p<.01$ ) reported to have effect on career identity.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48.2% of career ident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gram to improve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to promot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nursing education field.

**Key Words** : Strengths Knowledge,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Identity,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Songwon University 2021.(2021-45).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a kim(gh6081@gmail.com)

Received December 23, 2021

Revised January 24, 2022

Accepted March 2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치매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적정한 수급은 보건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9.8명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7.2명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1]. 정부는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을 꾸준히 증원하여 간호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병원간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0년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44.5%를 보여 취업 간호사의 약 절반이 1년 이내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는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입학정원의 증원뿐 아니라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신규간호사가 취업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이유로 업무 부적응이 지적되고 있는바[2],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낮추기 위한 접근으로 업무 부적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인 진로정체감[3]은 자신의 직업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성 및 안정성을 갖게 하는데[4],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진로정체감은 졸업 후 간호업무수행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진로정체감이 잘 확립되지 않은 상태의 신규간호사는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아지므로[6], 간호대학생이 대학 시기에 간호전문인으로서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추후 간호사로서 자신의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입학 후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므로 진로와 취업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지 않아 진로정체감이 부족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7].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은 추후 간호사라는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밑거름이 되므로[8],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신규간호사의 업무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이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긍정적 특질인 강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강점이란 개인의 긍정적 특질뿐 아니라 타고난 지식, 기술 및 능력으로 길러진 재능으로[9], 강점인식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10],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성격강점, 강점인지 등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특별히 강점인식은 대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진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탐색과 자기 확신을 촉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11,12], 진로성숙도[11]와 진로준비행동[12]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강점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13]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강점인식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에 강점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정체성 및 소명의식 등을 포함한 간호에 관한 직업 의식적 견해로[14], 간호대학생은 대학생 시기에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더불어 간호전문직관도 발달되고 확립되어 간다[15].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고[16], 추후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필요한 신념과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친다[17].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9]과 진로준비행동[18,1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현재 두 편 이루어졌는데,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0]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21]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지에 대해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규간호사의 업무 부적응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정도를 확인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 셋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넷째,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1개 대학과 M시 1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사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인 11개(일반적 특성 8개, 연구변인 3개), 유의수준 .05로 산출한 결과 178개로 확인되었다.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2부를 제외한 198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작성된 설문지는 곧바로 회수하였다.

### 2.2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 간호대학에 방문하여 연구목적, 설문내용, 대학 및 학과의 절차에 따라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설문에 앞서 대상자에게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 및 연구 참여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설명문을 읽은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만 19세를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설문 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강점인식

강점인식은 Govindji와 Linley [10]가 개발한 강점인식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Kim과 Lee [1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로 부정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 [1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였다.

####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oon 등[14]이 개발하고 Han 등 [22]이 수정한 도구를 Kang [23]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2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 등[3]이 개발한 직업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NVS) 중 하위 척도인 정체감 검사를 Kwon과 Kim [24]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모든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 [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순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정도

본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강점인식의 평균은 4.66점(SD=.89),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은 3.91점(SD=.46),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2.62점(SD=.50)으로 나타났다.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학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로 확인되었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은 1학년이 2, 3,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안정적 직업과 주위

권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3.3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 $r=.125,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 $r=.581, p<.001$ )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 $r=.265, p<.001$ )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98)

Variables	M±SD
Strengths knowledge	4.66±.89
Nursing professionalism	3.91±.46
Career identity	2.62±.50

Table 2. Degree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Characteristics	Range	n(%)	Career identity	
			Mean±SD	t / F (p) Scheffé
Age	≥23	149(75.3)	2.60±.50	.672 (.512)
	24-29	45(22.7)	2.64±.50	
	≤30	4(2.0)	2.89±.48	
Sex	Male	42(21.2)	2.61±.45	-.153 (.835)
	Female	156(78.8)	2.63±.48	
Grade	1st <sup>a</sup>	23(11.6)	3.09±.47	9.528 (<.001) a/b,c,d
	2nd <sup>b</sup>	39(19.7)	2.69±.49	
	3rd <sup>b</sup>	74(37.4)	2.52±.46	
	4th <sup>d</sup>	62(31.3)	2.64±.47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 <sup>a</sup>	63(31.8)	2.84±.48	9.327 (<.001) a/b,c
	Stable Job <sup>b</sup>	97(49.0)	2.53±.46	
	Another's Advice <sup>c</sup>	38(19.2)	2.49±.5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sup>a</sup>	65(32.8)	2.90±.48	20.800 (<.001) a/b,c
	Moderate <sup>b</sup>	123(62.1)	2.51±.46	
	Dissatisfaction <sup>c</sup>	10(05.1)	2.14±.27	
Economic state	High	18(09.1)	2.88±.52	2.916 (.057)
	Medium	161(81.3)	2.60±.49	
	Low	19(09.6)	2.51±.48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36(68.7)	2.58±.47	-1.727 (.086)
	No	62(31.3)	2.71±.56	
Work experience	Yes	154(77.8)	2.61±.49	-.283 (.777)
	No	44(22.2)	2.64±.55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98)

Variables	1 r(p)	2 r(p)	3 r(p)
Strengths knowledge	1		
Nursing professionalism	.125 (.080)	1	
Career identity	.581 (<.001)	.265 (<.001)	1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98)

Variables	$\beta$	t (p)	Ad. R <sup>2</sup>	F (p)	Durbin Watson
Strengths knowledge	.473	8.279 (.001)	.482	21.367 (.001)	1.993
Nursing professionalism	.167	3.209 (.002)			

### 3.4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갖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여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학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358-.907를 보여 .10이상의 기준이 충족되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가장 큰 값이 2.797로 나타나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 독립변수들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 Watson 지수가 1.993(1.864 < d < 2.136)로 확인되어 독립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1.367,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sup>2</sup>)는 .482로 연구변인들이 진로정체감을 48.2%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강점인식( $\beta=.473$ , p<.001)과 간호전문직관( $\beta=.167$ , p<.01) 진로정체감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Table 4와 같이 확인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강점인식 평균 4.66점, 간호전문직관 평균 3.91점, 진로정체감 평균 2.62점으로 나타났다. 강점인식은 7점 만점에 평균 4.66점을 보였는데 현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을 살펴본

연구가 없어 비교 고찰에 한계가 따르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im과 Lee [11]의 연구에서는 총점 평균 38.15점, Lee와 Lee [13]의 연구에서는 총점평균 39.58점을 보였고 본 연구의 평균 4.66점은 총점평균 37.28를 의미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일반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92점으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Jang 등[18]의 4.02점, Park 등[19]의 3.80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Jang [20]의 3.2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3, 4학년이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임상실습 경험을 한 집단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24]. 진로정체감은 평균 2.62점으로 동일 대상 및 도구를 이용한 Jo 등[25]의 2.54점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Jo 등[25]의 연구에서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와 Jo 등[25]의 연구 모두 지원동기가 적성과 흥미보다 안정적 직업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므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겠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이유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교과 및 실습의 부담이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과 및 실습 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학년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학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대상 및 도구를 이용한 Kim과 Ko [2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학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외에 동아리 활동 여부, 성적,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곳, 대인관계[20]와 임상실습만

족도[26]도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특성들을 추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에서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은 모두 진로정체감에 정적상관을 보였다. 강점인식이 높은 학생이 진로정체감도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일반대학생에서 강점인식이 높은 학생이 진로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11-13]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에서는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 간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없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 간 정적상관은 Lee와 Jang [20], Kim과 Park [21]의 연구와 일치하여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학생이 진로정체감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높게 인식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면 자신이 선택한 간호사라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높여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강점인식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점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11-13]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20,21]와 일치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졸업 후에도 이직의도, 재직의도[27,2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 시기에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통해 확립되기 시작하므로[15],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나타내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이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인지를 가져와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기 확신을 갖도록 촉진하므로 [14], 상담 시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자신의 강점이 발휘된 실제 사례에 대한 경험을 이끌어내어 스스로 강점을 인식하도록 돕고, 개인 또는 집단 내에서 사례별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인식을 촉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담이 주기적으로 또한 학교와 가정 간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촉진은 현재 대부분의 간호교육에서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해 간호윤리와 전문직, 간호관리학 등과 같은 교과목 및 교과 외 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간호사 이미지,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등 다양한 변인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데[29-32], 이들 변인 중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9-31]. 그러므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의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그 구성 요소 중 실습내용과 실습환경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29], 실습내용 측면에서는 이론에서 학습한 내용을 연계하여 단순한 기능적 업무보다는 문제 중심 간호와 간호과정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구성하며, 실습환경 측면에서는 실습교과목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습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습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실습환경을 갖추는 것은 실습기관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학교와 실습기관의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졸업 후 임상현장의 적용에 필요한 요인으로서 진로정체감에 중점을 두고,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로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을 확인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일반적 특성을 추가한 반복연구와 진로정체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Year Book 2020*.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1682](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1682)
- [2]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21).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
- [3] J. J. Holland, D. C. Gottfredson & P. G. Power.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200. DOI : 10.1037/h0077731
- [4] R. S. Sharf. (200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California: Thomson Publication.
- [5] H. J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 [6] J. W. Lee, N. Y. Lee & Y. S. Eo. (2018).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311-320. DOI : 10.5762/KAIS.2018.19.1.311
- [7] J. A. Seong, E. Y. Yeom & Y. S. Do. (2012).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2), 29-38.
- [8] N. K. Kim (2012).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9] D. O. Clifton, E. Anderson & G. G. Molina. (2002). *StrengthsQuest*. Princeton, NJ : Gallup Press.
- [10] R. Govindji & P. A. Linley. (2007). Strengths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2(2), 143-153.
- [11] M. J. Kim & H. K. Lee. (2014). Journal of Counseling :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5), 1811-1830. DOI : 10.15703/kjc.15.5.201410.1811
- [12] J. E. Lee & Y. A. Cho. (2017).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 Knowledg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9(3), 113-132. DOI : 10.23840/agehrd.2017.49.3.113
- [13] J. W. Lee & K. H. Lee. (2017).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on Undergraduate Student's Adaptation: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Ident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1), 205-228. DOI : 10.15703/kjc.18.1.201702.205
- [14] E. J. Yoo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5] E. H. Kim. (2016).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4(1), 532-541. DOI : 10.15205/kschs.2016.4.1.532
- [16] S. M. Kwon, J. H. Lee, R. W. Kwon & J. H. Lee. (2020).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ienc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8), 267-276. DOI : 10.5762/KAIS.2020.21.8.267
- [17]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37-2945. DOI : 10.5762/KAIS.2014.15.5.2937
- [18] M. H. Jang, M. S. Kask & J. R. Ah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9(1), 1-18. DOI : 10.37210/JVER.2020.39.1.1
- [19] H. M. Park, J. Y. Seok, S. Y. Park & S. Y. Lee. (2020). The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7(5), 1151-1158. DOI : 10.12925/jkocs.2020.37.5.1151
- [20] A. R. Lee & H. J. Jang. (2020).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6), 2427-2442. DOI : 10.37727/jkdas.2020.22.6.2427
- [21] N. H. Kim & S. Y. Park. (2019). Effect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0), 215-230. DOI : 10.22251/jlcci.2019.19.20.215
- [22] S. S. H, M. H. Kim & Y. E. Kyoung.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23] H. S. Kang. (2017). *Path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24] Y. H. Kwon & J. N. Kim. (2002).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2), 216-229.
- [25] E. J. Jo, J. H. Park & K. M. Lim. (2019).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329-337. DOI : 10.14400/JDC.2019.17.10.329
- [26] N. S. Kim & Y. J. Ko. (2020).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 211-218. DOI : 10.14400/JDC.2020.18.1.211
- [27] H. Y. Jeoung & S. Y. Kim. (2016).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Involvemen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5), 531-539. DOI : 10.11111/jkana.2016.22.5.531
- [28] B. J. Kim & M. A. Lee. (2018).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on Intent to Stay in Geriatric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4(5), 455-465.
- [29] K. S. Cho. (2020).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2), 142-152. DOI : 10.5953/JMJH.2020.27.2.142
- [30] K. M. Lim & E. J. Jo.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DOI : 10.5762/KAIS.2016.17.4.556
- [31] Y. J. Kim. (2020).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8), 265-276. DOI : 10.21184/jkeia.2020.12.14.8.265
- [32] H. J. Park & H. O. Park. (2020).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ism and Peace*, 14(2), 140-159. DOI : 10.22446/mnpisk.2020.14.2.007

## 김 경 하(Kyung-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인간심리
- E-mail : gh6081@hanmail.net